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6일 (음력 3월 1일) 월요일

“기억할께” 세월호 4주기 목포신항 노란물결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목포신항만에 육상 거처된 선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발길 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만에 또다시 노란 물결이 일었다. 추모객들은 목포신항 북문을 지나 직접 작업이 진행 중인 세월호 결로 향했다.

곳곳이 훼손된 선체를 보며 4년 전 그 날의 아픔을 다시 기억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들도 많았다.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추모객들도 있었다. 이내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선체 직접

“선체 직접 필요성 공감…침몰 원인 진실 밝혀지길” “진상조사위 구성도 국민 상식선에 부합하길 바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추모객들은 세월호를 바로 세워 남은 미수습자 5명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가 진행되길 바랐다. 북문 밖에서는 노란 리본에 너무 늦게와 미안하다. 늘 관심을 갖고 행동하겠다'는 글귀를 남겼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 앞에서는 미안함에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70~80대 노인들은 “오메 저 어린것들이, 제대로 구조만했어도”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마련한 침몰 가설 등이 적힌 인간관 내용을 집중해 읽는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다. 자녀들에게 침몰 당시 구조 책임을 받기 한 정부의 단일한 대응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설명해주는 부모들도 있었다. 참사 4년 기억문화제 ‘기억하라 행동하라’의 연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고생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다. 율타리에 매달린 노란 리본의 수는 줄었

지만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 마음은 그대로였다. 박준안(18)군은 “유가족 분들의 슬픔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에서 신항만을 찾은 정승호(13)군은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리본을 달았다”며 “늘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광주 시민 서정수(30)씨는 “배가 어떻게 기울기 시작했고 왜 짧은 시간에 침몰했는지, 기계적 결함은 없었는지,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규명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진상을 밝히고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사회 체계를 만들 때까지 일상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손서양(47·여)씨는 “후세에 거짓을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함께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수습자 5명의 유해를 어서 수습했으면 한다. 또 진상조사위 구성도 국민의 상식선에 부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MB대하기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된 이후 미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김경준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계약을 정확히 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10일 자신의 SNS에 ‘MB는 돈을 지불한다고 한 후 잊어버린 척하면서 떼어먹는 버릇이 있으니 새겨들기 바란다’면서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 김씨는 “2009년 당시 BBK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조선일보 언론인이 있었는데, 급여를 주지 않자 MB에게 질문했다(회사에 직함까지 있었기에)면서 ‘그러자 MB는 ‘그냥 무엇을 줄 것 같이 하는 척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떼어먹으면 된다’는 침으로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화를 전하며 김씨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그러니 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위법인 수수료료를 비로비로 청구해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은 변호사 등 관련 인사들의 수색을 상상에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스스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김철우 前 군의장 공천 확정

보성 토박이로 지역 발전에 기여...소신있는 정치인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철우 예비후보를 차기 보성군수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히며, 김철우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공천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성 토박이로서 지난 12년(의장 4년)의 보성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2차례의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였으나 지금까지 오직 한길 정몽민후보만을 고집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보성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보성읍에 사는 박모(남, 62세)씨는 “김철우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는데,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토박이 군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철우 후보는 “가장 먼저 보성군민과 민주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군민들께서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의향이 부끄럽지 않는 군민과 향우가 보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보성을 만드는 '군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우 예비후보는 최근 한국기자협회 보성군지회에서 실시한 차기 보성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와 오차범위를 벗어난 큰 득표 차로 1위를 차지한 선거초판 판세를 업고 조만간 선거사무소(김철우의 보성희망캠프) 개소를 시작으로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전남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 발령

15일 올해 들어 광주와 전남지역에 첫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광주지역에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입자 크기 10μm 이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μg/m³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한다.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422μg/m³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동부권은 낮 12시, 서부권은 오후 1시 기준으로 각각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다. 동부권 미세먼지 농도는 낮 12시 기준 288μg/m³, 서부권은 오후 1시 기준 372μg/m³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초·중·고의 실외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며 음식물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유치원은 입시휴원을 고려한다.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

2018 05.02wed ~ 05.07mon

죽녹원 및 관방제림 일원

